

# 주체사상이 밝힌 사람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입장

한은경

주체사상은 력사상 처음으로 사람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입장을 확립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은 객관세계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면서 자기 운명을 자체의 힘으로 개혁해나가는 세계의 주인, 세계의 개조자이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8권 79페이지)

사람에 대한 관점과 입장은 사람을 어떻게 보고 대하는가 하는 문제로서 력사적으로 논의되어왔다.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것은 단순한 학술상의 문제가 아니라 계급적리해관계를 반영한 사회정치적문제로서 력사적으로 사람의 본질문제를 놓고 진보와 반동사이에 심각한 철학적론쟁이 벌어져왔다.

반동적지배계급과 그 대변자들은 착취계급의 리해관계에 맞게 외곡하여 사람을 정신적존재로 보거나 자연적, 생물학적존재로 보았다.

사람을 순수 정신적존재로 보는 종교적, 관념론적견해에 따르면 사람은 그 어떤 초자연적인 신비로운 존재의 산물이며 사람의 운명도 그에 의하여 결정된다는것이다.

반동적지배계급과 그 대변자들은 사람에 대한 종교적, 관념론적견해를 가지고 근로인민대중이 착취받고 압박받는 불행한 처지는 피할수 없는 숙명적인것이며 따라서 주어진 운명에 순종하여야 한다는것을 설교하였다.

한편 사람을 단순한 자연적, 생물학적존재로 보는 견해는 목적의식적으로 활동하는 사람과 본능에 의하여 지배되는 생물학적존재와의 질적차이를 구별할수 없게 하였다.

반동적지배계급과 그 대변자들은 이러한 견해를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를 변호하는데 리용하였다.

사회주의배신자들이 부르조아자유화와 자본주의시장경제를 끌어들이면서 자본주의를 복귀한것 역시 사람에 대한 반동적인 관점과 입장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사람은 순수 정신적존재도 단순한 생물학적존재도 아니다.

사람은 사회적관계를 맺고 살며 활동하는 사회적존재이다.

사회적존재라는데 다른 생물학적존재와 구별되는 사람의 중요한 특성이 있다.

맑스주의는 사람의 본질을 사회관계의 총체로 규정하였다. 이것은 사람을 순수 정신적존재로 보거나 단순한 생물학적존재로 보는 비과학적이며 반동적인 견해를 타파하는데서 력사적공헌으로 되었다.

그러나 사람의 본질을 사회관계의 총체로 규정한것은 사람자체가 가지고있는 본질적 특성에 대한 전면적인 해명으로는 되지 못하며 따라서 그것으로는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 세계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이 옳게 밝혀질수 없다.

주체사상은 처음으로 사람자체가 가지고있는 본질적특성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고 그에 기초하여 사람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밝힘으로써 사람에 대한 주체적인 관점과 입장을 확립하였다.

물론 지난 시기에다 사람자체가 가지고있는 특성을 기본으로 사람의 본질을 해명하려는 시도들이 적지 않았다. 사람을 말하는 존재, 노동하는 존재, 사유하는 존재라는 식으로 규정하려고 한것을 그 실례로 들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사람의 본질적속성의 발현으로 되는 그 활동의 일정한 측면을 가지고 론한것이였다.

주체사상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라는데 사람의 본질적특성이 있다는것을 새롭게 밝히였다.

동물은 자연의 한 부분이며 자연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살아간다. 동물은 생존에 유리한 조건이 주어지고 자기 개체를 주위환경에 순응시킬 때에만 살아갈수 있다. 이런것으로 하여 지금까지 많은 종류의 동물이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지 못하여 사멸되었으며 적자생존이 생물계의 움직일수 없는 법칙으로 되고있다.

동물과 달리 사람은 주위세계에 순응하여 사는것이 아니라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며 발전하려고 한다. 사람은 동물과 같이 세계의 단순한 한 부분이 아니라 그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출한 존재이다.

단순히 주위세계에 순응되어 살아가는것이 아니라 주위환경을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복종시키면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며 발전하려는것은 사람만이 가지는 고유한 본질적특성이며 그것이 다름아닌 자주성이다.

사람은 동물과는 달리 주위세계에 목적의식적으로, 능동적으로 대하며 주위세계의 사물현상들을 그대로 리용하는것이 아니라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하여 리용하는 방식으로 살며 발전하는 존재이다.

동물은 자연을 그대로 리용한다. 물론 동물에게도 먹이활동이나 배설물을 통하여 자연에 일정한 변화를 일으키며 기묘하게 자기 보급자리를 만드는것을 볼수 있다.

그러나 동물이 목적의식적으로 자연에 그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그 무엇을 만드는것은 아니다. 동물의 활동은 어디까지나 무의식적이고 본능적이며 그것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람은 자연의 사물현상을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하여 생활자료를 만들어 리용하며 사회도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한다.

목적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간다는데 동물과 구별되는 사람의 본질적특성이 있으며 그것이 다름아닌 사람이 가지는 창조성이다.

동물의 활동에는 의식적으로 조절통제하는 계기가 없다. 거미가 곤충이 날아다니는 곳에 거미줄을 늘어놓고 그것을 잡아먹거나 개미가 겨울에 먹을것을 여름철에 미리 장만하는것, 거북기가 바다가의 모래불에 알을 낳은 다음 묻어서 숨겨놓는것 등은 의식적인 활동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본능적인 동작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세계와 자기자신을 파악하고 개변하기 위한 사람의 모든 활동은 본능에 따르는 맹목적인 활동인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조절통제되는 합목적적인 활동이다.

사람은 자기의 생활적요구와 객관적조건을 타산한데 기초하여 미리 목적을 세우고 합리적인 수단과 방법을 적용하면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주위세계를 개조변혁해나간다.

자기의 모든 활동을 의식적으로 조절통제한다는데 동물과 구별되는 사람의 본질적특성이 있으며 그것이 다름아닌 사람이 가지는 의식성이다.

사람이 가지는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하는 사회적속성이라는데서 생물학적속성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사람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발전된 생명유기체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사람의 발전된 유기체는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질수 있는 생물학적바탕으로 된

다. 사람의 발전된 유기체를 떠나서 사람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지만 사람의 발전된 유기체자체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낳는것은 아니다.

사람이 타고난것은 생물학적속성뿐이며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사회생활과정에 형성되고 발전된다. 자연이 인간에게 자연적속성, 생물학적속성을 부여한다면 사회는 인간에게 사회적속성을 부여한다.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사람이 사회적관계를 맺고 활동하는 과정에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되는 속성,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발생발전과정을 통하여 형성발전되는 속성이다.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것으로 하여 자기 운명을 자신의 힘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는것이다.

생물학적존재에 있어서는 그 운명이 객관적생활환경에 어떻게 순응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생물학적존재는 객관적생활환경에 의하여 그 운명이 결정되는 자연의 한 부분이지만 사람은 객관세계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면서 자기 운명을 자체의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세계의 주인, 세계의 개조자이다. 사람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발전할수록 세계의 주인, 세계의 개조자로서의 사람의 지위와 역할이 강화되며 그것은 사람에 의한 자연과 사회의 개조에서 표현된다.

사람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이 발전하고 그 역할이 높아지는데 따라 사회적재부가 늘어나며 사회관계가 개선되어나간다.

력사발전에서 모든 세대는 선행세대가 창조한 사회적재부와 사회적관계 다시말하여 주어진 객관적조건에서 출발하며 그것을 리용한다. 사회발전에서 이러한 객관적조건이 중요한 작용을 하지만 그 객관적조건자체는 사람의 자주적, 창조적, 의식적활동의 력사적창조물이며 그것을 리용하고 더욱 발전시키는것은 다른사람이다.

주어진 객관적조건이 유리하여도 그것을 리용하고 발전시키는 사람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높지 못하고 제대로 발양되지 못하면 사회가 빨리 발전할수 없으며 객관적조건이 불리하여도 사람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높고 그것이 옳게 발양되면 사회가 빨리 발전하게 된다. 이것은 사회발전의 력사적행정이 사람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의 발전수준과 그 발양정도에 따라 결정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피착취근로인민대중이 일찍부터 착취와 압박이 없는 평등한 새 사회를 념원하였지만 지난 력사적시대에 그것이 현실로 전환되지 못한것도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이 발전하지 못하였고 그 역할이 낮은 수준에 있었던것과 관련된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력사를 전진시키는것은 사람이며 사람의 자주적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이 빨리 발전하고 그 역할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회력사발전이 촉진되고 혁명과 건설이 성과적으로 추진되는것이다. 사회의 발전력사는 결국 사람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의 발전력사라고 말할수 있다.

사람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존재인것으로 하여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된다. 사람은 세계의 유일한 주인이며 유일한 개조자이다. 세계에는 사람보다 더 귀중한 존재가 없으며 사람보다 더 힘있는 존재가 없다.

그러나 부르주아반동들은 사람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보는것이 아니라 물질적생산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상품으로 매매되는 노동력을 소유한 하찮은 존재로 보며 사람을 자신의 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힘있는 존재로 보는것이 아니라 황금에 의하여

지배되는 무기력한 존재로 보고있다.

사회주의배신자들이 자본주의를 복귀하고 실업과 빈궁을 경쟁의욕과 노동강도를 높이기 위한 압력수단으로 보면서 사회주의가 마련한 모든 인민적시책들을 없애버린것도 자기 인민의 힘을 믿지 않고 자본주의나라들의 《원조》와 《협력》에 기대를 걸면서 제국주의자들에게 아부굴종한것도 사람에 대한 부르조아적관점에 선것과 관련되어있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람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립장이 밝혀짐으로써 사람중심의 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있는 사상리론적기초가 마련될수 있었다.

사람에 대한 주체적관점과 립장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에 빛나게 구현되였다.

우리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며 사업과 생활에서 사람에 대한 주체적관점과 립장을 철저히 구현하여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다.